

KAIT NEWS



2007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 개최



정보통신부(장관 노준형)가 주최하고, 협회가 주관한 '2007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가 지난 3월 7일 전경련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올해 정보통신부 주요 정책 및 국내 IT 주요기업의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이자, 기업 교류의 장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전자신문사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에는 IT 기업과 IT 관련 기관 및 단체 임직원을 비롯해 IT 관련 교수 및 연구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정보통신부의 2007년도 주요정책과 각 기업의 사업전략을 공유했다.

정보통신부는 김동수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미래정보전략본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정보통신정책본부, 정보통신협력본부, 전파방송기획단, 정보보호기획단, 소프트웨어진

흥단의 담당 팀장이 참석해 올해 주요정책을 설명했다.

IT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KT, SK텔레콤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올해 주요 사업전략을 발표했다.

협회 이교용 부회장은 "정보통신부의 올해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IT 기업의 사업전략을 교류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협회는 정보통신부 본부와 단이 특정한 정책 방향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전략 수립과 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올해가 협회가 창립20주년을 맞는 해"라며 "설명회 외에도 현장밀착서비스 및 고객정책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情감 있는 디지털 세상
느낄 살아 KAIT가 함께 합니다

제14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 공모

협회는 한국경제신문사(사장 신상민)와 공동으로 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제14회 대한민국 멀티미디어 기술대상'의 후보작을 공모한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제품 중 신청접수 시점 전 1년 이내의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신기술 및 제품을 개발한 기업, 개인, 단체가 직접 신청하거나 정부, 연구기관, 학계, 산업체, 언론 기관 및 경제단체 장의 추천으로 가능하다.

접수는 3월 30일까지 협회 대외협력팀과 한국경제신문 대외협력국 문화전시부에서 받고 있으며, 수상작은 6월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발표된다.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수상자에게는 각각 3백만원과 2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며, 정보통신부 장관상은 기술부문과 콘텐츠부문 등으로 나눠 각각 1백만원의 상금을 시상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장상,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상에게도 1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수상자는 제품 및 기술의 중요성, 독창성, 자립도, 경제성, 국제 경쟁력 등을 기준으로 전문분과위원회와 총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후보작은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국정보통신대전(Korea IT Show)'에 전시된다.

신청서 양식과 접수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kai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협회 창립 20주년 맞아 'KAIT 2010' 발표



협회는 지난 2월 22일 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KAIT 2010'을 발표했다. 협회는 새로운 비전을 통해 ▲디지털 컨버전스 중심기관 ▲IT 글로벌화 선도기관 ▲균형적인 IT 허브역할 등 '고객의 성공과 함께 하는 정보통신 대표단체'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협회는 비전 'KAIT 2010'에서 4대 중점목표로 협회 위상 정립 및 인식제고 확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신규사업 강화, 건전한 조직문화 및 내부역량 강화, 고객경영을 통한 고객가치 극대화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포럼, 전시회, 시상식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 사업 지원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책제안 및 정책건의를 통해 회원 대변 역할을 강화하고 각종 전문 IT 협의회를 통해 정책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IT 요금미납자 공동관리센터' 등 회원 공동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공동 가치를 증대시켜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결제시스템 및 정책 업무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회는 현장경영 실천 6대 핵심 전략을 수립해 대외적으로 ▲현장밀착형 서비스 추진 ▲IT 산업정보 제공 증대 ▲고객정책 서비스 강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일하는 방식 개선 및 경영 효율성 제고 ▲사업 책임제를 통한 고품질 경영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KAIT NEWS



“IT의 미래, Geospatial Web”

경원대학교 김은형 교수 초청 한국IT리더스포럼 개최

한국 IT산업을 이끌고 있는 산·학·연 핵심 리더들의 모임인 ‘한국IT리더스포럼(회장 윤동윤)’ 2월 정기조찬회가 2월 23일(금) 오전 7시30분 JW메리어트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2월 조찬회에서는 경원대학교 김은형 교수가 “IT의 미래, Geospatial Web”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김 교수는 주제 강연을 통해 “미래 IT환경은 공간적인 관점에서 정보와 기술이 통합될 것”이라며 ‘지오스파셜 웹(Geospatial Web : 공간정보 웹)’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공간정보 웹’의 대표적인 예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밀항공 사진을 이용해 제공하는 지도서비스를 들고, “우리도 웹2.0 시대 신규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그리고 유비쿼터스 및 u시티로 대변되는 제3의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공간정보 웹’을 사용 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용자 중심의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확대하며 공간



정보에 대한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초소형 센서기술, 유비쿼터스 네트워크에 의해 물리공간과 전자공간의 교집합인 제3의 공간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같은 제3의 공간, 유비쿼터스 공간을 구현하는데 공간정보 웹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은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u시티 사업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대부분의 u시티 사업이 센서·네트워크와 같은 기반기술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앞으로는 콘텐츠와 전자공간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공간정보 웹을 u시티에 도입, 성공모델을 만들으로써 우리나라가 u시티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파했다.



情값있는 디지털시사
느낄수 있는 KAIT가 함께 합니다

FTTH산업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 산하 FTTH산업협의회(회장 윤종록)는 지난 2월 9일 메리어트 호텔에서 2007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윤종록 회장 등 운영위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 2006년도 사업실적을 승인하고,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통신·방송 융합시대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서를 확정했다.

2007년도 사업계획에 따르면, 협의회는 분과별로 발굴된 이슈사항 처리방안과 광분배기술 경진대회 개최방안, FTTH 시공 전문 자격증 신설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FTTH산업협의회 매거진을 발행하고, 협의회 회원사 탐방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FTTH 가입자조사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초고속정보통신 인증위원회를 운영·관리해 나가고 BcN기반 인프라 인증제도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연구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올해 IT관련 통합전시회인 '한국정보통신대전(KIS : Korea IT Show)' 개최에 따른 'FTTH·u-City산업전시회'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기존 임원에 대한 연임 건을 의결했으며, 임원과 임원의 선임에 대한 운영규정도 일부 개정했다.

LBS산업협의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협회 산하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지난 2월 7일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2007년도 제1차 LBS산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2005년도 사업실적을 보고하고 2006년도 사업계획(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장인 SKT 김수일 상무를 비롯해 LBS산업협의회 운영위원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LBS 시장현황 및 전망'에 관한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LBS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SKT 김수일 상무, 한국위치정보 정종원 본부장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이날 논의된 2007년 주요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협의회는 현재 시행중인 위치정보법 정착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충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자 등의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위치정보법 개정(안) 마련 및 산업발전을 위한 대정부 정책 건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LBS전문교육과정 운영을 통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지원하고 국내외 LBS 기술 및 시장동향연구 수행, LBS 워크숍 및 LBS Membership Day 개최, LBS 표준화 연구지원 등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LBS 산업 활성화를 위한 측위고도화 추진 정책 건의서(안)를 검토하고 위치정보법 19조 3항에 관한 대응책 마련을 논의했다.

협회 조직 개편 및 인사 발령

협회는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KAIT 2010'을 발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현장밀착형 고객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3월 6일부로 조직 개편을 단행, 기존 3본부(1센터), 1부 15개팀 1부설(센터) 체제에서 4본부(1센터), 1실 3부문 1부설 기관(센터) 체제로 변경했다.

이를 통해 ▲ 경영혁신 체제 확립 ▲ 유사 종복기능 통폐합으로 기능 재정립 ▲ 기획조정 기능 강화 ▲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한 협회 역할 강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인사발령>

- 배 장 만 (통신서비스사업본부 본부장, 경영혁신본부 본부장 겸직)
- 김 춘 석 (IT통계정보센터 본부장)
- 안 광 학 (IT산업전략본부 본부장)
- 이 재 찬 (부설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 원장)

KAIT NEWS



2007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 개최

정해년 새해를 맞아 IT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통신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새해 협력을 다짐하였다.

정보통신부와 35개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단체는 1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전직 장차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언론대표, IT업계 사장단, 정보통신 관련 기관장 등 주요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정보통신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하였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올해를 우리나라가 IT강국의 위상을 지속할 수 있을지 가능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해로 정의하고, 통신방송 융합 및 산업간 융합 촉진, IT부품·소재산업과 SW산업 육성을 통한 IT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IT산업 발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준현 장관은 '디지털로 하나되는 희망한국' 건설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모든 정보통신인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 대외협력팀 (02-580-0566)



情감있는 디지털人生
스마트의 KAIT가 함께 합니다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 개최

정보통신부는 5일 IT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벤처 창업분위기 조성과 신규고용 창출을 위해 대학생, 교수, 연구원, 일반인 등 예비창업자가 참가하는 '제9회 정보통신벤처창업 경진대회'를 시작한다.

이번 대회는 멀티미디어·콘텐츠, 정보통신서비스, 일반패키지 SW, 기기·부품 등 4개 분야로 나눠 진행되며,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3단계 심사를 거쳐 최종 20개 이내의 우수 작품을 선정해 정보통신부장관상 및 상금과 함께 국내·외 IT 시장 견학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창업예비교육, 창업 집중교육, 사업화 실무교육, 특허출원지원, 해외시장 견학 등 창업에 필요한 종합적인 프로그램도 함께 시행된다.

정통부 측은 "올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풀을 대폭 확대해 전문성과 기술성 등에 대한 공정한 심사를 강화했다"며 "정통부의 각종 지원정책과 연계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안서 접수는 내달 13일까지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홈페이지(venture.kait.or.kr)와 전화(02-580-0526)를 통해 접수한다.

LBS기술 및 시장동향연구 보고서 발간

- 올해 국내 LBS 시장 8,200억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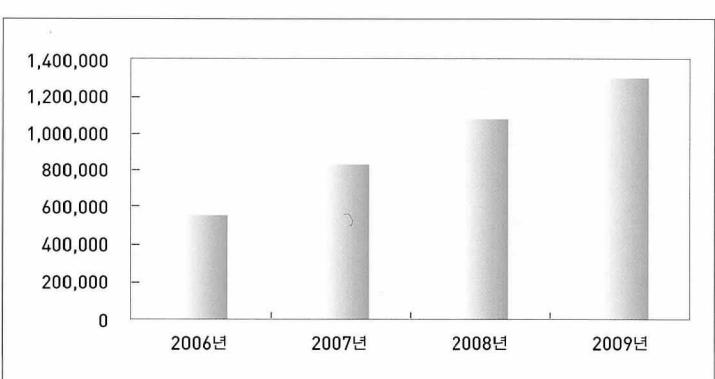
협회 산하 LBS산업협의회(회장 조정남)는 국내외 LBS산업 동향을 조사·분석한 "LBS 기술 및 시장동향 연구 보고서"를 지난 2월 20일 발간했다.

LBS산업협의회가 2006년 11월부터 12월까지 LBS 관련 업체 92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내 LBS 시장규모가 2006년도 5500억원에서 2007년에 8200억원으로 성장하고 2008년에는 1조원을 넘어서는 등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올해 분야별 매출 전망을 살펴보면 단말기 등 기기분야가 360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6%를 차지하고 서비스 및 콘텐츠 분야가 1600억원(30%), 시스템이 220억원(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2005년 조사에 비해 단말기 매출은 증가한 반면, 서비스 및 시스템 매출은 감소한 결과여서 LBS 시장 증대를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국내 LBS 업체들이 정부에 바라는 정책지원 사항으로는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가장 높고, 자금 및 세제 지원, 시장 판로개척 순이었다. 구체적인 정책 요구사항으로 위치정보법 규제 완화와 법제 간소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그 밖에 측위 정밀도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해외 홍보 채널 마련, 전자지도 국가 표준화, 전문가 프로그램 시행 등이 있었다.

문의처 : KAIT 정보화기획팀 02-580-0532



<국내 LBS 산업 전체 시장 규모(단위:백만원)>